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The APO in the News”

Name of publication: AjuNews (17 November 2014, Republic of Korea)

Page: <http://www.ajunews.com/view/20141117101024903>

대한상의, “한국, 싱가포르·홍콩보다 근로시간 더 짧다”(종합)

채명석 기자(oricms@ajunews.com)| 등록 : 2014-11-17 11:10

〈표〉 아시아 경쟁국의 1인당 GDP 및 연간 근로시간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1인당 GDP (13년 기준)	명목소득	25,975달러	38,468달러	20,925달러	55,182달러	37,955달러
	구매력 기준	33,791달러	36,654달러	41,539달러	78,762달러	52,984달러
연간 근로시간	PWT(11년 기준)	2,193시간	1,706시간	2,144시간	2,287시간	2,344시간
	BLS(12년 기준)	2,289시간	1,727시간	-	2,409시간	-

* 1인당 GDP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4

* 연간 근로시간 :

- PWT : Penn World Table ver. 8.0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와 네덜란드 University of Groningen의 Groningen Growth Development Center에서 운영하는 국민계정 국제비교 DB)
- BLS :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GDP per Capita and per Hour

아주경제 채명석·양성모 기자= 한국이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에 속하지만, 오히려 경제수준이 높은 홍콩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이 우리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노동생산성이 가장 낮으면서 실질 임금수준은 가장 높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17 일 발표한 ‘아시아 경쟁국의 근로시간 · 임금 · 생산성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홍콩은 우리보다 1 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훨씬 높지만 근로시간이 더 길었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비슷했으며 일본은 더 짧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서구 선진국이 아닌 유사한 경제발전 경험을 가진 아시아 경쟁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수의 국제자료를 통해 아시아 경쟁국의 근로시간·임금·생산성을 비교했고, 항목별로 유사한 결과를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아시아 경쟁국의 연간 실근로시간 국제데이터(Penn World Table)를 분석한 결과 2011 년 기준 홍콩(2344 시간), 싱가포르(2287 시간), 한국(2193 시간), 대만(2144 시간), 일본(1706 시간) 순으로 근로시간이 길었다. 또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2012 년 기준 자료에서도 싱가포르(2409 시간), 한국(2289 시간), 일본(1727 시간) 순으로 일하는 시간이 많았다.

<표> 아시아 경쟁국의 1980~2011년간 연평균 근로시간 변화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연간 근로시간 (’80 → ’11)	2,689시간 → 2,193시간	2,121시간 → 1,706시간	2,581시간 → 2,144시간	2,372시간 → 2,287시간	2,358시간 → 2,344시간
감소율	-18.4%	-19.6%	-16.9%	-3.6%	-0.6%

* PWT, Penn World Table ver. 8.0

싱가포르와 홍콩의 2013 년 기준 1 인당 GDP 가 각각 5 만 5182 달러와 3 만 7955 달러로 한국(2 만 5975 달러)을 훨씬 앞서고 있지만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대만은 구매력 기준 소득(한국 3 만 3791 달러 대 대만 4 만 1539 달러)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지만 근로시간은 비슷했다.

지난 30 여년간 근로시간 감소추세 역시 한국이 아시아 경쟁국보다 가팔랐다. 한국은 1980 년~2011 년 사이 근로시간이 연평균 18.4% 감소해 일본(19.6%)에 이어 가장 많이 줄었다. 같은 기간 중 대만은 16.9% 감소했고, 싱가포르와 홍콩은 각각 3.6%와 0.6% 감소에 그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서구 선진국과 비교해 근로시간을 당연히 단축해야 한다고 논의됐지만 우리나라와 경제발전 경험이나 문화가 비슷한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반드시 장시간근로 국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노동생산성은 가장 낮으면서 임금수준은 가장 높아 경쟁국에 비해 노동시장의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생산성기구(APO)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쟁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근로자당 노동생산성을 보면 싱가포르와 홍콩이 가장 우위에 있고, 이어 대만·일본 순이었다. 한국은 싱가포르의 64% 수준에 그쳤다. 시간당 노동생산성 역시 싱가포르·홍콩이 가장 앞선 가운데 일본·대만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싱가포르·홍콩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다.

〈표〉 아시아 경쟁국의 노동생산성 비교('13년 기준)

구분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근로자당 생산성	58,700달러	63,300달러	74,600달러	92,000달러	90,200달러
시간당 생산성	26.5달러	36.6달러	35.5달러	42.0달러	40.4달러

* 아시아생산성기구(APO), APO Productivity databook 2013

반면 한국의 임금수준은 경쟁국보다 높았다. 복수의 국제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명목임금은 일본, 싱가포르보다 낮지만 홍콩, 대만보다 높아 경쟁국 중 중간수준이었다. 그러나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기준(PPP) 임금은 홍콩, 대만은 물론 일본, 싱가포르보다 높아 경쟁국 중 최고 수준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우리나라가 경쟁국보다 노동생산성이 낮고 임금은 높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무리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기업은 고임금 부담에 생산량 차질까지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던 나라 중 싱가포르와 홍콩은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이 4만~5만 달러에 도달했는데 우리나라는 7년째 2만 달러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가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규제 강화가 아닌 생산성 향상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의 노동규제 강화 추세는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 4월 국회의 정년 60세 의무화 입법, 12월의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에 이어 올해는 근로시간 단축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 10월 초 발의된 비교적 온건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마저 노동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이 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기업규모별 6단계로 나눠 시행하자는 내용이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해 생산성과 임금 등에서 경쟁력이 낮고 근로시간도 길지 않은 상황임에도 생산성 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채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 법안마저 반대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법제도를 정하고 그 이상의 수준은 각 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